

JBNU 새만금 잼버리 지원단 구성

전북대, 숙박·통역·안전관리·응급의료 등 적극 지원 포르투갈·말레이시아 스카우트 대원 920명 생활관 입소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대학 자체적으로 JBNU 새만금 잼버리 지원단을 구성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전북대는 김종석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원단을 꾸려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에서 철수하는 참가자들이 남은 일정을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날 전북대 생활관에는 포르투갈 800명, 말레이시아 120명의 청소년들이 입소했다.

이에 전북대는 지원단 내에 운영지원팀을 두고 교내 버스 지원과 안전관리 등을 실시하며, 시설지원팀에서는 숙박과 급식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지원팀에서는 국제협력과 통역 등을 지원하고, 의료지원팀에서는 응급환자 관리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전주캠 퍼스 1천여 명, 익산 특성화캠퍼스 200여 명 등 모두 1,20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여석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오는 12일부터 과테말라와 에콰도르, 인도 말라, 폴란드 체코, 아일랜드, 호주 등에서 온 800여 명을 대상으로 'JB 스카우트의 밤'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양오봉 총장은 "잼버리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범지역적 역량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기 때문에 지역 거점대학인 전북대 역시 지원단을 구성했다"며 "한국을 찾은 세계의 많은 청소년들이 보다 좋은 기억을 안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대는 이번 잼버리를 위해 LINC3.0 사업단의 후원을 받아 잼버리 현장에 2만5,000명의 얼음생수를 지원한 바 있다.

/정은성 기자



8일 전북대 생활관에 도착한 포르투갈 스카우트 대원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이들은 전북지역에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남은 일정을 소화한다.

우석대, 영진약품 전주공장과 협약

공동연구, 학생 인턴십·현장실습 운영 등 추진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8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영진약품(주) 전주공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희석 산학협력단장, 이미경 기획처장, 임재운 약학대학장, 이원웅 약학과장, 김대근·채병숙·김효정·임주희·채운지·박수신·한주희(이하 약학과) 교수가 영진약품(주) 전주공장에서는 사대원 공장장 임영규 품질관리사 전제만 품질보증팀장, 채봉영 생산기획팀장 송명훈 생산팀장, 이호림 생산팀장, 김형민 기술개발팀장, 서승환 품질시험

팀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약학과를 중심으로 영진약품(주) 전주공장과 △기술 및 경영자문 △공동연구 △학생 인턴십 및 현장실습 운영 △산학협력 세미나 및 특강 공동 개최 △산업체 공동기술개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희석 산학협력단장은 "의약품제조 분야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영진약품(주) 전주공장과는 업무협약을 통해 대학의 이론과 현장의 실무능력이 한층 더 제고될 것"이라며 "양 기관의 상호 발전을 위해 대학이 보유하고 있



(사진 왼쪽부터)정희석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사대원 영진약품 전주공장장, 임재운 우석대학교 약학대학장.

는 인·물적 자원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사대원 공장장은 "우석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체계를 통해 바이오엘산업 분야에 특화된 인재를 양성하고, 관련 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군산대-ARC-세이에스에이, 미래형 에너지산업 협력 방안 논의

해상풍력실증단지 연계 부유식 SMR 단지 구축 협약

캐나다 원전 개발사 아르(ARC) 대표 윌리엄 라베(William Labbe)와 부사장이인 제임스 울프(James Wolf), (주)세이에스에이의 정봉기 대표이사, 정나겸 부사장이 8일 미래형 에너지산업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예방했다.

방문단은 국립군산대 이장호 총장, 최연성 부총장, 장민석 산학협력단장, 김상영 산학협력부단장을 만나 해상풍력, SMR 등 미래형 에너지산업 발전 방안 및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벌였다.



캐나다 원전 개발사 아르(ARC) 대표 윌리엄 라베(William Labbe)와 부사장이인 제임스 울프(James Wolf), (주)세이에스에이의 정봉기 대표이사, 정나겸 부사장이 8일 미래형 에너지산업 발전방안 논의를 위해 국립군산대학교 이장호 총장을 예방했다.

에 구축한 해상풍력실증단지와 연계한 부유식 SMR 실증단지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미래형 에너지인 SMR 관련 연구 개발 및 우수 인력 양성, 상호 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 등에서 실질적인 유대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장호 총장은 "ARC는 4세대 소형 모듈원전 SMR의 실증 및 상용화에 앞

선 기술을 보유한 SMR 선도개발사로, 국립군산대학교의 해상풍력실증단지 와 연계하여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ARC와 세이에스에이, 국립군산대학교가 상호 협력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광근 기자



도교육청, 언론대응 홍보역량 강화 연수

이창익 전주MBC 기자 강사로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8일 2층 강당에서 본청 교육전문직원 및 일반직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언론대응 및 홍보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보도자료 작성과 언론대응에 대한 직원들의 막연한 부담감을 없애고, 언론 대응 요령을 익혀 자발적인 홍보 의지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전북교육청 출입기자인 이창익 전주 MBC 기자가 강사로 나서 △연론인 눈으로 본 전북교육 홍보 현주소 △효율적인 언론 대응 방법 △보도자료 작성 요령 △보도자료 및 정책홍보 콘텐츠화 방안 등을 설명했다.

특히 25년 이상 취재기자로 활동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정은성 기자

도교육청, 인권교육 직무연수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인권교육 강사단 및 교원 40명을 대상으로 8~10일까지 전북교육인력센터에서 진행된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그동안 학생으로 한정돼 있던 인권 보호 대상을 교원과 직원, 보호자까지 확대함으로써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고,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3일간 총 18차시로 운영되는 이번 연수는 △기후위기와 인권교육 △미래교육과 인간다운 교육 △사제로 보는 학생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침해 △인권권감수성을 기르는 인권리더십 수업 등으로 이뤄졌다.

/정은성 기자



전주교대, 오늘까지

SW·AI 에듀톤 부트캠프

전주교육대학교는 8일 마음연구회에서 2023년 SW·AI 에듀톤 부트캠프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초·중등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예비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부트캠프는 '해커톤 방식 SW·AI교육 캠프'를 주제로 8~9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지난 6월 예선캠프를 거쳐 초등 12개교 15개팀 중등 8개교 9개팀이 이번 부트캠프에 진출, 전주교대에서는 컴퓨터교육과 3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된 '서승현·홍주연 팀'이 참가했다.

먼저 8일에는 초·중등 SW·AI교육 현장 사례 특강을 시작으로 기초(7개) 및 심화(3개) 프로그램 부스체험을 운영했으며, 9일은 팀별 수업계획서를 발표한다.

정보교육학회 박선주 회장(광주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은 축사를 통해 "예비교원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한 관심과 매년 향상하는 수업지도안 수준을 보면 올해도 기대된다"며 "대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도착점 멀지 않았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수능 앞두고 수험생에 응원 메시지 전해



없이 지켜보며 기도하시는 부모님이 있다"면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도전에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수험생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내십시오." 서거석 교육감이 8일 대학수학능력시험 100일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거석 교육감은 이날 격려문을 통해 "도착점이 멀지 않았다"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격려했다.

이어 "여러분 옆에는 저마다 꿈을 향해 함께 노력하는 친구, 힘든 순간마다 격려해 주시는 선생님 말

끝으로 서거석 교육감은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값진 땀의 노력이 여러분을 내일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며 "자신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여러분을 전라북도교육청이 함께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이 목표”

우병훈 신임 전주비전대 총장 취임식

지자체 협력 통한 재정지원 확보 등 제시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우병훈)는 8일 비전관 대강당에서 제1대 우병훈 총장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학교법인 신동아학원의 차준순 이사장, 박주용 전북도교육청 부교육감, 김성주 국회의원, JTV 한병규 사장, 동신교회 신정호 목사 등이 함께 했다.

신임 우병훈 총장은 취임사를 통해 "대내외적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주비전대는 취업이 잘 되는 대학, 지역과 사회를 발전시킬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갖춘 대학, 구성원이 행복하고 자긍심을 가진 대학, 국가와 세계에 기여하는 글로벌 대학을 목표로 학교 운영을 내실 있게 펼쳐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AI, 반도체 등의 첨단사회에서 우리 대학이 지속 가능한 대학이 되기 위한 글로벌채용, 대학간 통합 지역 혁신중심 대학원체계(RISE)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학 구성원들과 함께 미션스플의 사명을 다하고, 지역사회에 필요한 대학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우병훈 신임총장은 취임사에서 △기



독교 대학으로써의 정체성 확립 △구성원 간의 갈등 해소와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 △지자체 산업기술 인력 양성 △철저한 입학정원관리 △지자체 협력 통한 재정지원을 확보와 교직원 급여체계 개편 등 지출역제 방안 수립 △국제교류원의 조직 확대 개편 등을 밝혔다.

한편 우병훈 신임 총장은 한국항공대학교에서 정보통신 학사와 석사, 동신대학교에서 전자공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주비전대학교 교수로, 입학관리처장, 주문식사업단장, 기획처장, 대학혁신본부장 부총장 등의 보직을 두루 거쳤다.

/정은성 기자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추진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K-water 용담댐지사 등과 협약 체결

전주대학교 지역혁신센터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용담댐 탄소제로형 스마트 에코마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4일 K-water 용담댐지사, 진안군 안전면 행정복지센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동군산사회적협동조합, 전북도민에너지전환협동조합, 달빛정류장협동조합, 보한마을 주민협의회 등 7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용담댐 상류 진안군 안전면을 대상으로 K-water 용담댐지사, 진안군 등 민·관·공·산·학이 함께 협업해 지역 중심의 저탄소 사회로의 체계적 이행을 위한 마을 단위 탄소중립 실현 및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는 댐 주변 지역 살리기를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거버넌스 구축 △보안마을 스토리 발굴 및 개발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 운영 △주민 감사 양성 △보안마을 브랜드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또 의제 실행을 위해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마중물 예산 외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프로젝트 추진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지역문제해결플랫폼 한동승 공



동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댐 개발로 소외됐던 마을의 새로운 자원을 발굴해 '살고 싶은 마을, 풍요로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해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역문제해결플랫폼은 지역문제 발굴부터 해결까지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리빙랩(living lab) 형태로 운영되며, 특히 민·관·공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문제를 발굴·해결·확산해 나가는 혁신적인 프로세스라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업이다.

/정은성 기자